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을 소개했다.

##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위한 세미나 LA와 OC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Back To The Bible”을 주제로 성경읽기 운동과 함께 ‘무너진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정 회복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 7일(목)~8일(금) 양일간 LA 지역은 로텍스호텔, OC 지역은 은혜한인교회에서 각각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낙태법 폐지를 위한 백만서명운동(The Moral Outcry)의 리더이자 The Justice Foundation의 설립자, 텍사스 주 세인트메리대학 법학교수인 앨런 파커 변호사가 “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란 주제로 강의를 한다. 또 에스라성경통독

사역원 대표인 주해홍 목사가 “우리 교회부터 성경 속으로”라는 주제로, 꿈땅 대표인 정한나 사모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주최측은 25일 오전 11시 엘에이 한인타운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0% 이상의 성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모르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일회적인 눈에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개혁과 회개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회개 운동이 불 붙듯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각 교회마다 ▲성경 읽기와 삶의 일치 운동 ▲성경적 가치

관 회복 운동(가정예배의 회복, 나태 반대 운동, 성경적 도덕성 회복 운동, 차세대 신앙 전수 운동) ▲미국과 한국에 대부흥을 주시도록 회개기도 ▲미국과 한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선교운동 활성화 등 구체적인 아젠다를 놓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가주 지역의 크리스천 언론과 각 지역 교계 단체를 총망라해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남가주 지역 기독교 언론인들은 철저하고도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경운동만이 이민교회와 미국교회가 살 길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주최측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인규 기자

## 강균성과 함께 하는 밀알의 밤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균성과 함께 하는 밀알의 밤이 ‘고백(마16:16)’이란 주제 아래 열린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밀알의 밤 행사를 통해 모금을 진행해 밀알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1년 이래 현재까지 209만 7천 달러

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집회는 15일 오후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 16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 17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시각장에 찬양사역자인 하경혜 씨와 밀알수어찬양단도 찬조출연한다.

강균성 씨는 그룹 노을의 보컬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여러 앨범을 발매했으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티켓은 15달러이며 남가주 지역 각 서점, 기독교 백화점 등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562-229-0001

## PCUSA 한인목회자들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에 저항”

살롯츠빌 폭력 사태 후 성명 발표

지난 8월 11일과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살롯츠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 미국장로교(PCUSA) 소속 30·40대 한인목회자들이 최근 성명을 내고 “이 땅을 차별과 증오로 물들이는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racism)에 저항한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의 존엄성(창1:27)을 믿는다”면서 “피부색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인종 차별은 예수께서 몸으로 허무신 분리의 벽을 다시 세우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또 목회자들은 “우리는 기독교와 성경이 인종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아픈 역사를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증언한다(갈3:28). 그러므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이들은 즉시 내려와야 하며 백인 우월주의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겠다는 추악한 상상(사2:17-18)”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목회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미국 땅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경험하는 일상적 인종주의의 악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인종주의자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전하고 일구는 일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PCUSA 공동 총회장인 Jan Edmiston과 드니스 앤더슨(Denise Anderson), 사무총장인 토니 델라 로사(Tony De La Rosa), 총회 정서기인 J. 허버트 넬슨(J. Herbert Nelson) 등 4명의 최고 지도자들은 15일 살롯츠빌 폭력 사태와 관련,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성경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용되었음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는 다양성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훨씬 더 일관되고 두드러지게 증거하고 있음을 선포한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확고하게 모순되며, 화해되지 않는 뚜렷한 대비에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창설에 교회가 공범이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도전하여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한 교회의 실패를 고백한다. 너무 자주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불의와 억압에 대해 침묵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에 PCUSA 지도부들은 인종차별과 관련,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신 은혜와 사랑보다 인간이 창조한 계급을 높이는 상상(사2:13)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불의와 억압에 대해 침묵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Oxford Ave ■ Tune-Ups ■ 10K Service  
 Pico Blvd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  
 with 강균성 **고백** 마 16:16  
**FOREVER 21**  
 특별후원: James Worldwide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8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97,000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 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7년 11월 30일(목) / 발표: 추후 개별통보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562-229-0001 smilal@milalmission.com  
 이메일: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hotdeal.koreadaily.com 중앙티켓센터 213-784-4628 / 두란노서원 213-382-5400 Joy 기독교서점 213-380-8793 / 북음사 562-865-4949 알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로메오캘러리아점 213-380-8885, 플라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라기교육복지회점 714-636-7430 / 울타리서점 310-325-9191 / ANC온누리교회 서점 818-834-7000 / 베델서점 949-854-9191  
 Ticket Donation: \$15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562. 229. 0001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목회자와 그 가족들, 이번 행사를 섬긴 스태프들

## “목회는 아내가 90%, 목회자는 10%”

###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 - 남가주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 수료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에서는 항상 그러했듯 수많은 간증과 눈물, 회복의 역사가 넘쳐났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를 위해 20여 명의 스태프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 끊임없는 기도로 중보하며 섬겼다. 그 사랑과 희생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었다.

나성서부교회(서건오 목사)에서 8월 21일, 22일, 27일 3번의 만남으로 진행된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 과정에서 총 11명의 아버지들이 수료장을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날 강의에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아버지의 사명”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권 목사는 “목회를 해 보니 사실 아내가 목회를 90%하고 내가 10% 하더라”며 “아내의 헌신과 수고, 흘려 눈물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해야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목회는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만 정작 3분의 2 이상을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삶은 배워본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학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조별 나눔과 간증문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에서는 각기 사역 가운데 가슴 아프고 시린 사연들이 소개돼 몽글한 감동을 전달했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인 세족식은 눈물 바다였다.

“대야에 고인 물은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남 모르게 흘린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쁨의 눈물이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아내

를 상처 주었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듯,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었음을 눈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다.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아름답게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김규향 목사는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아버지로 준비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목회자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인구 목사는 “금번 목회자 아버지학교의 큰 변화는 지역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목회자들이 강사가 되어서 섬기고 후원에도 기쁘게 참여한 점”이라면서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으로 가정 회복의 거룩한 역사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회장에 고광호 목사, 총무에 이시은 목사를 뽑고 향후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며, 내년 제14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준비에도 동참하게 된다.

이인규 기자

## 임현수 목사 무사 귀환 감사 예배 드려

### 교단, 정계 지도자들 참석해 기쁨 나눠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의 무사 귀환을 감사하는 예배와 저녁 식사가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8월 28일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임 목사와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지도자들과 캐나다 정계 인사들, 성도들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큰빛교회의 제이슨 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틴데일대학교의 케리 넬슨 총장이 개회기도를 한 후, 본 커뮤니티 교회의 피터 한 목사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요나 마틴 상원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으며 박성규 목사(KPCA 총회장, 주님세운교회)가 축도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임현수 목사가 지난 2년 7개월 간 북한 생활 중 받은 연단과 은혜, 그리고 비전을 간증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성규 총회장은 “임현수 목사의 석방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제이슨 노 목사, 박성규 목사, 임현수 목사

의 기적의 손길이다”란 격려사를 전했다.

한편, 임 목사는 석방 이후 첫 주일예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준 전 세계 성도들과 끊임없이 구명 운동에 힘써 준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임 목사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됐음을 믿는다”며 “역류 중 공포

와 두려움, 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또 임 목사는 “역류 기간 앞으로 젊은이들과 청년 지도자 교육 등 세계 교회들을 깨우면서 일할 비전을 발견했다”며 “남은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 베데스다 총동문회장에 박정기 목사

### 28일 총회 열고 임원 선출

베데스다대학교·대학원 총동문회 총회가 지난 28일 오후 6시 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총무를 맡았던 박정기 목사(더락한인교회)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 앞서서 드린 예배는 박정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최다니엘 목사(회계)가 말씀을 선포했으며 윤미정 목사(회계)가 헌금기도를 했다.

송일 학생과장이 참석해 학교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모니카 백 목사(직전회장)가 축도했다.

총회는 오후 7시부터 시작돼 김

영 목사(부회장)의 회원점명 후, 윤미정 목사가 회계 보고를 했고 임원 선출 시간에 박정기 목사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신임회장 박정기 목사의 진행으로 다양한 안건을 토의한 후 폐회했다.

문의) 213-327-8095



박정기 목사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보는 테필린(Tefillin) 세미나

### “약속의 땅을 찾아 갑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2세와 3세의 차세대 양육원리와 비전을 신명기를 통해 보게됩니다.

#### 특징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쉽게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 강사 : 강신권 박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20
- 인원 : 20명 (\*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예약 바랍니다. )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 주관: 토브성경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에서 김은호 목사가 열강하고 있다.

# 전세계 1만여 교회 하나되어 기도하자

## 다니엘기도회 LA 지역 컨퍼런스 열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각 교회가 기도의 동력을 회복해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연합의 기쁨 또한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 한국교회는 위기다. 예상 통합, 합동 교단을 통틀어 교회 주일학교 65%가 없어졌다.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급격한 부흥을 주셨던 한국교회, 그런 한국교회가 유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줄고 있다. 1년에 10만쌍이 이혼하고 자녀도 가장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이라도 했을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개척 초기 아파트 상가에서 13명을 놓고 예배 드릴 때부터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오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다.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했던 강령의 한 작은 교회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던 성도들이 다니엘기도회 기간에 함께하며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 또 다른 지방의 교회는 ‘개척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는 고정관

념을 완전히 깨트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한 교회들은 이런 기적과 간증들이 수 없이 많다.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기도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15년에 1,076개 교회에 참여했고 2016년에는 3,202개 교회가 동참했고, 올해는 현재까지(8월 29일) 7천7백여 동참하기로 등록을 마쳤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기도회는 올해 1만 교회가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니엘기도회의 간증을 나누기 위한 행사가 지난 8월 28일 오전 LA 지역과 오후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렸다. 바로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미주 컨퍼런스였다. ‘여는 기도회나 세미나와 다를 바 없겠지’ 하며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이번만큼은 달랐다. 진정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싶었기에 눈물로 회개하는 목회자들이 넘쳐났다. 한 목회자는 김은호 목사의 강의를 끝나자 강단에 올라와 “더 많은 교회에게 이번 행사를 알리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첫 시간 강사로 나선 김은호 목사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왜 지금은 안 일어나겠는가? 저는 기도의

절대적인 힘을 믿는다. 매년 기도하는 21일 다니엘기도회 후에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오륜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82%가 예배 때문에 이 교회를 택했다고 말했다”면서 “설교는 기록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 공동체”라며 “꿈은 꾸는 것이 아닌 꾸어지는 것이다. 줄기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니 비전 공동체가 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전은 야망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면 이미 야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된 평신도들이 교회에 많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오륜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니 그 비전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됐다고 고백하더라”면서 “각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요17

장 4절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일일이 요 이것이 모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 안에 나는 한 달란트만 받았다는 억울함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두 달란트를 남긴 자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역시 동일하게 축복하셨을 것이다. 최고가 되려 하지 말라. 최선을 다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평가 받는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이어 주성하 목사가 다니엘기도회 사역을 소개했다. 주 목사는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하는 교회만 1만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미주 지역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것이 합심기도의 힘”이라면서 “이미 수많은 교회들 안에 간증과 기적의 사례 등이 넘쳐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들려지는 기도회가 얼마나 현장감이 있을까라는 오해가 많이 있지만, 기도회 참석이 거듭될수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참여한다는 간증이 넘친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이민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넘어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1만 교회 10만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이있는미래 소장인 주경훈 목사는 마지막 강의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모의 문제”라면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교육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교회는 1년에 많아야 40시간인데 부모가 자식과 보내는 시간은 3천 시간

이 넘는다. 결국 이 3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부모와 자녀가 소그룹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배우고 가정예배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원 포인트 통합교육의 중요한 가치”라며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새벽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한번 더 공부하고 가정예배에서 은혜를 나누고 주일예배 때 한번 더 반복해서 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후 교회의 가정예배 비율이 2014년에는 28%에서 2015년에는 44%, 2016년에는 51%가 넘어섰다. 부모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비율을 빼면 81%가 넘는 수치이다. 꿈이있는미래는 이 비율을 어떻게 높일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세대를 언급하셨다. 오늘날 교회 교육도 3세대를 있는 통합교육 커리큘럼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목사는 “실제로 꿈이있는미래 교재를 쓰는 교회는 1800여개 교회가 넘는다. 꿈이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모든 콘텐츠를 다 무료로 올려놓고 공유했다”면서 “미국의 한인교회도 이 교재를 쓰고 있는 교회가 있고 앞으로는 영어로도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가주한인목사회 김영구 목사의 기도회 인도,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의 축도로 LA 집회를 마쳤다. LA 집회는 오전 시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고 OC 집회는 오후 시간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그리고 세미나 다음날 김은호 목사는 남가주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기도회에 미주 지역교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과 꿈이있는미래 교육을 통한 주일학교 돌보기 발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규 기자



28일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LA 지역 행사 모습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책?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ICM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공동체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  
♥등록 604-535-1800 admin.ictc@gmail.com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 안내**

### 예수님의 선교학교

▶ 전방적선교에 부름받은 선교헌신자를 위한  
**Jesus School of Missions**

일자 / 10월 23일(월)~27일(금) 4박 5일  
강사 / 김병선 선교사 (전 GP훈련원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ICM 디렉터, 스페인 선교사)  
등록 / 150불(교재, 숙식 포함, 침낭/타월 지참)

김병선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한국교회 선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훈련 받아 팀으로 갈 때에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학교 수료 후, 1년 선교공동체 훈련과 여러 교회의 공동파송으로 전방 개척선교지에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예수님의 기도학교

▶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Jesus School of Prayer**

일자 / 11월 1일(수) ~ 3일(금) 2박 3일  
강사 /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록 / 60불 (교재, 숙식포함, 침낭/타월 지참)

이영환 목사

이영환 목사님은 1980년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목회철학으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매일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약 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1>

### 볼리비아 선교사의 마지막 발걸음(2)

지난 세월 늘 남편 황희수 선교사의 한발짝 뒤에서 선교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던 부인 황우신 선교사의 눈물 어린 간증이다. 코차밤바에서의 본 사역을 은퇴하고 후임에게 모두 다 넘긴 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휴식하고 싶었고, 정말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선교지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한다.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다. 코차밤바 종합대학과 선교센터는 19년 사역을 통해 모두 다 건물과 시설을 완공하여 후임선교사들이 맡 놓고 사역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볼리비아에 처음 와서 개척했던 첫 교회당은 관심을 못두고 버려 두었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때 황우신 선교사가 남편 앞에서 선포한다.

“여보! 우리 미국 정년은 70이니까 당신 남은 4년간 우리 이곳에서 남은 선교사역을 마칩시다.” 이제껏 자기의 결정에 일평생 순종해 왔던 부인이 지금 먼저 선포하고 남편의 순종을 기다린다.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 나는 따를게.” 그렇게 결심하고 방문하고 가려 했던 그곳에 남은 4년간 교회당과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좋은 후임자를 세우는 데까지 하나님께 재헌신을 결단하였다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두 부부는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 잠시 미국에 들어와 후원했던 몇 분들에게 그런 사정을 보고하고, 또 기다리고 있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잠시 방문하고 이제 다음 주면 들어 간다. 그들의 간증과 고백을 감격으로 들으며 내 마음에 “아! 가야겠다. 기도하고 그들이 마지막 4년을 사역하는 그곳에 선교 방문을 해야겠다. 후원할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선교지인데 마지막 남은 며칠간 초기에 개척하고 건축했던 농촌마을 교회를 방문해보고 싶었다. 어쩌면 교회가 남아 없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시골 그 교회가 보여지는데 18년 전 지었던 건물 밖에 자신들이 걸었던 외벽 간판이 색도 많이 바라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당시 담임인 자기들의 이름이 그대로 써 있었다.

너무도 반갑고 감사하여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몇몇 젊은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가 황 선교사 부부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나와 환성을 지르며 환영했다 한다.

두 부부도 처음엔 몰라 보다가 “아! 애들아!” 잇어졌 것 같았던 그들의 어릴 적 이름이 나오며 너무도 감격하였다. 18년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근처에 살면서 어린 시절의 그 교회당을 지키며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골 농촌으로 들어온 선교사도, 현지인 목회자도 없었다 한다. 그들이 “우린 선교사님을 기다렸어요” 하는 말을 할 때부터 부인 황우신 선교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예배당 안의 직다가 만 교실들의 터들, 교회 앞마당의 포장공사,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교회당 안의 부서져 내린 공사의 잔해들



두 선교사가 18년 전 개척하였던 교회당 입구 모습

###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교회의 항일(抗日)활동 (III)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은 사건 중 하나는 안중근(安重根)의 이등박문 격살사건이다. 1909년 10월 26일 한국 강점을 러시아에 알리고 양해를 얻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을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운동을 지도하던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처치한 사건이 터졌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18세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이다. 천주교 신자로서 살인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판사의 질문에 그는 다음 같이 답했다.

문 : 그대가 믿는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겠지?

답 : 그렇다.

문 : 그렇다면 그대는 인도(人道)에 반(反)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답 : 교(敎)에서 사람을 죽임은 그국(局)에 있는 자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성서에도 사람을 죽임은 죄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살인이 잘못임을 시인하면서도 국가를 빼앗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므로 죄악을 제거했다고 천명했다. 안중근의 살상 행위가 옳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가 기독교인으로 애국적 행위를 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지나간다.

안중근의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우연준(禹連俊: 본명은 禹德淳)이다.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충북 제천 사람이다. 을사늑약이 공포되자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고, 그곳에 계동(啓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일의병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러다 1908년에 안중근을 만났고, 의기투합하여 이등박문 암살에 합의했다. 그들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두 곳을 저격 장소로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선택했는데,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우연준이 채가구(蔡家溝) 역에서 감행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아침 6시 30분에 이들을 태운 열차는 채가구에 서지 않고 통과해 오전 9시에 하얼빈에 도착한 후, 하차하는 이들을 안중근이 격살했다. 우연준이 이들을 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기차가 채가구를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중근과 우연준, 즉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두 인사가 이 대담한 일을 감행했다. 국가를 위하는 일에 가톨릭과 개신교 교인이 연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기독교인 강우규(姜宇奎), 이동휘(李東輝) 등도 테러 행위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 기간 중 줄곧 일제 당국자들과 그주구(走狗)들을 처단하려는 노력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건을 기독교의 항일투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적 항일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항일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이 경제적 저항운동은 저항력이 강한 서북지방에서 빈발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은 조세(租稅)저항이다. 그 이유는 이곳이 기독교와 가장 먼저 접촉된 곳이고 조선조에서 백안시된 지역으로 관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자연히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많아 조세저항의 요소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가 그 침략의 야욕을 구체화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요

지를 헐값으로 취득, 또는 탈취하였다. 이곳을 자기들 상업 거점으로 확보하면서 영세한 한국 상인들의 시장을 침식하여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토를 헐값에 사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철로건설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농민의 생활 터전인 농토를 강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농지의 25%를, 불과 3%도 안 되는 일본인들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제의 만행이 삶의 근거를 상실한 한국인들의 저항을 가져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경제적 항일 방법 중, 가장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조세저항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평북 용천과 평남 순천에서 있었던 기독교 상인들의 조세저항이다. 1909년 4월 통감부는 시장세(市場稅)를 제정, 공포하여 징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저항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평북 용천 양시의 시장터였다. 이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시장세를 거부하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곧 인근 각지로 퍼져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평남 순천 지방의 저항이 가장 강렬했다. 1910년 1월 이 곳에서는 순천읍교회 장로 최봉환(崔鳳煥)의 지도로 상민회(商民會)를 조직하여 시장세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후에 이 운동이 폭력화되어 일부 흥분한 상인들이 일인 상점을 부수고 방화하였으며, 급기야 일인 수명을 살해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런 조세 저항운동은 서북 지방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운동은 일부 지방에서 선교사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부추긴다는 일제의 판단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들 기록에 의하면, 함경도 경성군에서는 기독교도들이 선교사들과 합세하여 연초경작세(煙草耕作稅)와 주세(酒稅)를 거부하였고, 또 세금을 수납하러 온 징세원을 폭행하였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기독교회에서 금연, 금주를 엄히 가르치고 실천한 데 기인한 것 같다. 함경북도 성진에서는 선교사 로스와 그리어슨(R. G. Grierson)의 지시에 의해 시장세를 거부했다고 기록했다. 실제로 선교사들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관변(官邊) 자료 기록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일제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선교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평가한 시각이 강했다는 증거가 된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민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Since 1966

##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 리스장 의사

### 더가까이에서, 더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랏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 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 / 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 공력의 심판날에

## 고린도전서 3:10-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 말겨진 소임에 충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인지심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보증을 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더 많은 영혼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영적체질 신앙을 가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실망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망조입니다.

고린도전서3:1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3장 편지 모두에 전제하는 서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바울의 시각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상태로 아직도 죄인 그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더 많이 구원 얻도록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 설자리 만들고 행세할 수 있는 자리 만들며, 교회분위기를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기를 목적으로 돈도 뿌리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휩쓸리는 영혼도 천국가가가 참으로 어렵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찢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3:2)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전3:3)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곧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씨를 심었다고 합니

다.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빨리 생명의 씨가 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가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가 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온전히 성령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가기 위한 목적 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되 깊게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해서 그 분의 나라 하늘나라 성령으로 인도받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회장이고 목자라 해도 여러 분과 예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역할 외엔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된 예수께 중재하는 중재장이라 했습니다. 중재는 신랑감 신부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키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넘쳐서 부부가 되어 짝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재장이 그 중간에 계속 끼어있다면 도움이 안 되고 뺄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에게 데려다 맡기신 것은 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 표현으로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께 중매 서라고 목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준급 이상으로 성숙되게 되면 목자가 없어도 자기 혼자 기도, 봉사, 전도, 구제도 하고 자기가 모신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랑도 하고 증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매자들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옆에 물러나 있으면서 그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기대가 새로워져서 더 열렬한 관심으로 세밀히 보살펴주시고 예수님 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시어 목자에게 책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결실로 하늘나라 들여보내야 한다는 사명에 책임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 2.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 그리스도의 심장 소임!

이 책임 목회라는 중심에는 그리스도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애를 쓰며 가르쳐도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을 보기도 하

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구분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3:15에 보면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 터 위에다 자기 믿음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공물여서 만들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있고 불에 금방 타버리고 재가 되어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중간 심판 때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날에 나무나 풀,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불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불변 무한한 존재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믿음의 공력을 쌓

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해서 예수님 품에 들어갈 그 때까지 영원불변한 공적을 쌓았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때에 공력이 계속 빛나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고 회개도 했고 구원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공력을 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 같은 것으로 대충했고 생활은 다른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당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1992년도부터 이단들이 시한부종말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성인 사람들을 이끌어 내서 재산을 다 기증하게 하고 남의 재산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들이 예수님을 믿되 부당없이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부당없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했다는 것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결부시키고 자기 수고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격으로 주님 맞을 수 있을가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자기 공력을 타 없어질 것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공적 쌓기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영원불변의 공력 쌓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7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재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권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회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빛,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단계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예반젤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 ▪ 대화 지도자 7주 과정 (기독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6일~10/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5:00)  
장소 : **얼바인 중앙장로교회** (담임 이기업 목사)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 대화 지도자 5주 과정 (기독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9일~10/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9:30~오후 2:00)  
장소 : **나성제일교회** (담임 김문수 목사)  
213 S.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GRS 가을학기 애틀랜타 본교 개강예배

# GRS 애틀랜타 본교, 가을학기 시작

## 선교사 및 이민목회자들 수업 받아

글로벌리폼스신학대학원(원장 김은수 목사) 2017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21일(월) 오전 11시, 제일장로교회 GRS 본교에서 열렸다. 같은 날, 5주간 애틀랜타 본교 가을학기 수업이 시작됐다.

예배는 각 선교지에서 참석한 학생들을 비롯, GRS 운영이사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수 원장의 사회, 이석주 장로(운영이사장)의 기도로 시작됐고 교목인 최상선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5-6절, 창세기 5장 21~25절'을 본문으로 예능의 삶을 조명하며,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을 예능 앞에서 치워버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예능은 한 평생을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동참하는 각자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심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이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권면했다.

자문위원회 회장 서삼정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며,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면서 "지식은 사용함으로 완성된다. 여기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함으로 완성되길 바란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깨닫는 바를 논문에 적용해 정리해 놓으면 자신의 사역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1부 예배(오전 9:00)와 2부 예배(오전 11:00)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은수 원장의 사회로 시작됐고, 이석주 장로(운영이사장)의 기도, 최상선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2부 예배는 서삼정 목사의 격려사, 이석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GRS 애틀랜타 본교 개강예배를 기념하여, GRS 운영이사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GRS 애틀랜타 본교 개강예배를 기념하여, GRS 운영이사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가을학기는 9월 15일까지 연속 4주간 상관문화 박사 과정(선교학, Doctor of Intercultural Ministry)의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4주간의 수업에는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 번째 주부터는 애틀랜타, 뉴욕, LA,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집중강의에 제공되는 과목들은 "상관문화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Dr. Eunsoo Kim), "목회신학"(Theology of Ministry, Dr. Allen D. Curry), "교회교육"(Church Education, Dr. Curry), "제자도"(Discipleship, Dr. Samuel H. Larsen)이다.

김은수 원장은 보고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GRS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제 새로운 글로벌 유형의 선교대학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GRS는 단순히 학위나 발급하거나 어떤 유형의 값싼 교육도 철저히 지양하며, 확고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양성을 목표로 애틀랜타와 해외 여러 지역에서 그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GRS는 이번 4주 연속 애틀랜타 본교 강의에 이어 LA, 뉴욕, 일본, 한국, 필리핀 사이트에서 12월 초까지 계속하여 선교학 박사 및 석사 과정 수업을 제공한다. 문의) globalekim@gmail.com 770-827-9689

윤수영 기자

# 청소년 성가 합창제 열린다

##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 박재형 신임회장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 신임회장으로 박재형 지휘자가 선출됐다.

박재형 회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국내 우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또한 현재 성가합창과 오케스트라 작,편곡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년 전 애틀랜타로 온 박재형 지휘자는 지난해 제일장로교회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40주년 행사인 신영옥 초청 콘서트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성공적으로 지휘한 바 있고 특별히 올해 메시아 연합 연주회 지휘를 맡음과 동시에 교회음악 협회장직을 맡게 됐다.

박재형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장직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자리이다. 애틀랜타 한인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재형 회장은 "애틀랜타 지역의 교회음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교회음악인들에게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단계로 세워나가고 교회음악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교회음악 학술 세미나와 같은 교류행사를 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교회와 한인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청소년 성가 합창제와 교회음악 세미나, 메시아 연주회 등 사업계획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청소년 시절 성가대를 하며 쌓았던 추억들이 바탕이 되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가



애틀랜타한인교회음악협회 박재형 신임회장

대를 했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성가대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 합창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성가 합창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찬양의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교회음악협회 사업 중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 연주회에 대해서는 "올해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메시아'를 모토로 특별함이 있는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뿐만 아니라 뮤지컬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박재형 회장은 "바로크 음악의 묘미와 메시아의 드라마적인 요소를 살려 무대연출을 가미한 특별한 연주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앤더슨 김 기자

# 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버몬트코너  
 주중세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민가정을 지원하여,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장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미장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일 오전 11:00  
 금요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일 오전 11:00  
 리셋예배(말씀예배) (소매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213)35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화)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9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종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이자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 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림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9:30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인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무대 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토 5:00 (토) 5: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 (818) 363-5887 Tel: (213) 232-316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도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토) 5:30am (토) 7:00am  
화요일성경집회 7:00pm 토요일찬양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정동성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이동원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 요즘 희귀한 전도적 설교 시대착오적인 것인가?

## 이동원 목사, 한미준21 '교회 핵심전략 세미나'서 강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의 '한미준21'이 '교회 핵심전략 세미나'를 28~30일 일정으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안성수광안에서 진행했다.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송태근(삼일교회 담임)·김병삼(만나교회 담임)·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화종부(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 임성빈 총장(장신대), 김윤희 대표(FWIA) 등이 강사로 나서 설교와 목회, 선교 등 교회와 관련된 전반을 강연했다.

첫날 계획예배와 특강은 이동원 목사가 맡았다. 특히 '우리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설교'를 제목으로 강연한 그는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적 설교'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바울 설교의 특징은 ①강해적 설교 ②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③전도적 설교다. 즉, 바울은 성경 본문을 읽은 뒤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 관계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푸는' 강해적 설교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고자 했다.

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①모든 본문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지 말 것과 ②서둘러 예수님을 해답으로 제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목사는 "예수를 해답으로 제시하기 위해선 먼저 '질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인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얼 고민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며 "그래야 그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떨리게 전할 수 있다. 그저 '믿습니까?'라고 강요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무엇보다 '전도적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이구동성으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전도적 설교는 하지 않는다"며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목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일 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전도적 설교는 한국교회에서 매우 희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월로루크리교회의 담임인 빌 하이벨스 목사 이야기를 꺼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과거 한국을 찾았을 때 자신이 통역을 맡아 함께 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엔 그를 매우 차갑게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가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그

의 진정한 '영성'을 발견했다고 이 목사는 회상했다.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저를 기억하며 '혹시 지난 번 내가 했던 세탁소 주인 이야기를 기억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가 '마침내 그 세탁소 주인을 전도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또 외국 한 호텔의 직원을 전도한 일화도 감격에 차 제게 전했습니다. 그런 빌 하이벨스 목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대형교회의 목사지만 저토록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라고"

이 목사는 "전도적 설교가 결코 성도의 성숙에 도움이 안 되거나 차원이 낮거나, 시대착오적인 설교가 아니"라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성도가 성숙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어찌 낮은 차원이 될 수 있으며, 예수가 과연 시대착오적 존재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예수 천국"을 외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 방법엔 생각을 달리하지만 그 메시지, 즉 예수와 천국은 한국교회가 결코 무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목사는 앞서 계획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천국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실존적 하나님만을 강조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치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초대교회야말로 확고한 천국 소망을 품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현실의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또한 "이른바 포스트모던 설교를 말하는 이들은, 결단을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열어두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시대는 그걸 요구할지 모르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설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비판의식이 필요하지만 버리면 안 될 것이 있다. 교회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병들었다 한들 어찌 어머니를 버릴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면서도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버리는 걸 영웅시하는 분위기, 가난한 교인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 종교인 과세 TF팀 대정부 창구 단일화에 집중

한교연과 한기총, 한장총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인 과세 대책 TF팀'(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27일 오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창구 단일화'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TF팀은 이날 TF팀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음을 각 교단에 알리고, 각 교단이 처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교단의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의견을 취합해 향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TF팀 밖에서 각기 활동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천주교, 불교 등도 참여하는 종교

김진영 기자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 힐송

###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동성결혼 '반대' "결혼 정의 바꾸는 것,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돼"

힐송의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호주의 국민 투표의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경고하고 기독교인의 투표를 독려했다. 휴스턴 목사는 18일(현지시간) 힐송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크리스천이 동성 결혼에 대한 우편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결혼 정의를 바꾸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으며 모든 사회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는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언급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조롱 당하거나 무시 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휴스턴 목사는 "이 논쟁 전반에 걸쳐 양측 입장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

고 존중하지 못했다"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은 믿음의 신념을 편협한 것으로 혼동하지만 기독교인 등 종교인의 신념은 이것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이를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슬프게도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용해 동성애자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기도 한다"며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동성 결혼은 현재 호주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지만 오는 9월 12일부터 호주 시민을 대상으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의 변경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우편투표를 진행한다.

우편투표는 11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고 최종 결과는 그달 25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기자

### 미국인 10명 중 8명은 '혼자 기도'

미국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최근 바나 리서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홀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 1,01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조사에서 대부분(82%)은 조용히 혼자 기도했지만 13%는 혼자 소리 내면서 기도한다고 답했다. 2%만이 '교회와 집단적으로 기도하다' 또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라고 대답했다.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감사'(62%)와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였다. 위기에 대한 개인적인 기도가 49%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요청(34%), 정부에 대한 우려(24%), 세계적인 불의(20%) 또는 성경이나 전례 낭송(8%) 순이었다.

전 세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진보주의자들은 보수파(19%)보다 전 세계적 불의(26%)를 위해 기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기도제목으로 흑인(27%)은 백인(19%)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대조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20%)보다 국가나 정부(29%)를 위해 기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 교육 이상의 사람들(17%)은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26%)의 사람들보다 국가나 정부를 위해

더 적게 기도했다.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23%가 성경, 50%는 예수님께 기도했다. 5%는 '성인'(the saints)에게 기도했다. 3%는 '내 안에 있는 신성한 힘', '조상' 또는 '우주'를 향해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1%는 알라에게 기도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1,015 명 중 888명은 자신에 대해 기독교인 또는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다고 답했다.

바나의 편집장 록산 스톤(Roxanne Stone)은 "기도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영적 관행이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기도 활동에 참여한다"면서 "가장 주목할만한 측면은 기도의 질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기도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에서 그다지 강력한 추진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도 생활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면 어떤가? 한 명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합심 기도의 힘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기도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기자

### 백인우월주의는 혈통 우상시하는 죄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관점 가르쳐야

뉴욕 리더 매거진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가 최근 샬롯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와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5일 '더가스펠코어리션'(TGC)에 관련 칼럼을 게재한 팀 켈러 목사는 "20세기 파시스트 운동은 '피와 땅'(blood and soil)을 절대 가치로 삼았다. 이는 순수 혈통의 아리아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며, 상대적인 현대 문화의 타락에 반대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도덕적 덕목을 옹호하는 주장"이라며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서 발언을 열었다.

켈러 목사는 "백인 민족주의 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종주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뿐만 아니라 일

상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같은 독소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먼저, 기독교인들이 활발하고 대답해진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정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로, 지금은 인종주의 죄와 혈통·국가 우상시하는 죄에 대한 성경의 강력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드러낼 때이다. 이 모든 죄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는 우리가 지난 주 샬롯츠빌에서 목격한 사건들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죄악이다. 복음은 이같은 죄를 드러내고 이를 치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 예배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가족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예)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VE예배 오전 11:30(영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가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리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68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falg.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 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 10월 1일  
신청접수 e-mail: ancsfug@gmail.com

###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3.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sfug@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자격사항 및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 818.834.7000 / www.anconnuri.com

## 오랜 기다림 속에 핀 아름다운 꽃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며칠 전 저희 집 앞뜰에 있는 선인장들 중 하나가 꽃을 피었습니다. 주황색 꽃인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선인장이 꽃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인장 꽃은 쉽게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인장이 꽃피우면, 보고 또 보곤 합니다. 진한 초록색의 선인장이 주황색 꽃을 피어낼 때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경이로움은 선인장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감동입니다. 오랜 기다림 중에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준 선인장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인장 속에는 장차 피어낼 꽃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겨울 속에 봄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선인장 속에는 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과일 씨앗 속에는 장차 맺게 될 과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속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은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곁작품인 인간도 작은 씨앗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가 잉태될 때 그 크기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게 될 아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작은 씨앗 속에 장차 성장할 아름다운 한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작지만 그 속에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참나무가 담겨 있고, 그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큰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 거대한 숲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며 그 씨앗이 장차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깃들게 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인장은 오랜 기다림 속에 꽃을 선물해줍니다. 백년초라는 선인장 꽃은 100년 만에 핀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오랜 기다림 속에 꽃피웁니다. 선인장은 주로 사막에서 삽니다. 선인장은 뜨거운 태양 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자랍니다.

한 번은 저를 집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각종 선인장들로 가득찬 공원으로 안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선인장들을 보고, 선인장들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두 팔을 떨어뜨린 선인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선인장들은 병든 까닭에 두 팔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인장들이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저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선인장을 통해 기다림을 배웁니다. 선인장 속에는 꽃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선인장 속에 담긴 꽃은, 언젠가 아름답게 꽃 피울 날을 기다리다가 때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다림 하면 수동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수동태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선인장 속에 담긴 꽃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엄마의 자궁 속에 잉태한 아이가 서서히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동경합니다. 누구인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동경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복된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바니 수간호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2의 고향 같은 필라델피아에서 몇몇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을 신학교 근처 애빙톤(Abington)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 의료보험이 없어서 결국 클리닉에서 인턴 의사들의 실험 도구(?)가 되면서 아기를 낳았던 시절의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이어서 후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인턴 의사들이 한 뼉 길이의 무시무시한 주삿바늘로 척추에 무통 마취 주사를 네 방이나 놓았지만 듣지 않아서 고생한 이야기, 결국은 반쪽만 마취되고 반쪽은 산고의 통증을 그대로 느끼면서 아기를 출산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애빙톤 병원의 산부인과 간호사 이야기가 나오자 후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인턴들의 부작용을 너그러게 대처하면서 진정으로 환자를 돌보아 준 ‘바니 수간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니 수간호사는 신학교 시절 전도사들의 신생아들을 거의 다 받아 준 간호사였고 특히 산모들을 지극 정성으로 대해 주면서 친정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 준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바니 수간호사의 감동 스토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당시 전도사들이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피크닉을 마련해서 바니 수간호사 가정을 초대하여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정성들을 모아 선물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며 바니 수간호사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니 수간호사의 눈에는 유학길에 나선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젊은 사모들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처음으로 클리닉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

을 써 주면서 돌보는데 한국 여성들의 체질이 서양인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잘 알려진 병원에 전부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한국 여인이 야기 낳는 것을 도울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답해준 내용을 보면서 한인 산모들을 돌본 바니 수간호사는, 그렇게 수많은 한인 목회자들에게 감동으로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한 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눅 17:9-10)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니 수간호사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신학생들이 바니 수간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감사패까지 증정했을까요? 바니 수간호사는 자기 할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고 최저치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과 사랑과 열정으로 했습니다. 그때 감동이 있듯이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랑과 열정으로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열매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어떤 부인이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여러 그림들을 보던 중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아니한 액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 밑에 “빵을 먹고 있는 아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그림의 작가가 옆에 서 있길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빵은 보이지 않나요?” 그랬더니 작가가 대답하기를, “빵은 아이가 벌써 먹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아이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표정으로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빵을 다 먹은 아이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액자만 걸려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형식은 그럴듯 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외적 형태보다는 내실이 넘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적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제자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흥미하고 어두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른 말씀의 훈련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길 바랍니다. 살렘!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 전문 진료 과목

- 한방 신경정신과
- 불면, 불안(공황장애)
- 우울증, 조울증, 회병
- 과잉행동증후군(ADHD)
-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배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동지침법 창안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응답하라! 개혁신학] 아, 가나안이어!

#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성도’

### 가나안이라는 이름

가나안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없다. 그러나 가나안만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름도 없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땅이요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가나안의 이름은 얼마든지 왜곡과 도용이 가능한 이름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매우 사악하고 거칠고 공격적이다. 그들은 여러 개의 분산된 개체로서 이 합집산의 산발하는 떠돌이로 출몰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하나의 이상향이자 소망의 대상이지만 실제의 가나안은 안락함이 있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장이고, 음행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타락의 땅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저주받은 땅으로 등장한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이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시종일관 괴롭히고 성가시게 한다. 결국 그들의 유일한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었다. 족보 상으로는 분명히 가나안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동족의 피를 나누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오직 원수일 뿐이다. 특히 일명 ‘가나안 7족’으로 호칭되는 부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략질과 침공과 탄압으로 일관한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부족은 단 한 번도 평화의 시기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러한 가나안의 상징성과 의미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 도구다. 지금도 가나안의 이름을 가진 실제 없는 악한 대적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씹어 공격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있다. 이에 가나안의 정체를 살피고 연구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일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사악한 영의 도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가나안(Canaan)은 히브리어로 ‘케나안’인데 이는 ‘법률, 혹은 평평한

땅’을 뜻한다. 가나안은 사람 이름에서 유래하여 지역의 이름과 한 부족의 이름이 되었다. 원래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막내 아들이다(창 10:15). 가나안족은 바로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은 그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벼은 몸을 보고 버릇없이 행하여 노아로부터 아버지 함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창 9:24).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향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고 했다. 이 저주는 당장 가나안에게 실행된 것이 아니라 후손에 이르러 이루어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족들을 종들로 삼아 부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나안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7족만을 가나안족으로 삼아야 할지,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또 어느 곳인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주전 5세기 알라라크(Alalakh) 왕 이드리의 비문에 있는 ‘마 아트 키 인 아님(ma-at ki-in-a-nim, 가나안의 땅)’이라는 언급을 기초로 갈대 혹은 진한 자줏빛을 뜻하는 약카드어 어근 키나(Kina)와 가나안을 동일시한다. 또 주전 15세기 누지문서에 표기된 ‘키나후’(kinahhu, 가나안 사람의)라는 형용사가 원래 ‘자줏빛의 염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가나안족과 진한 자줏빛 직물과의 상관 관계를 논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자들은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족의 고향 혹은 정신적 명사로 상징되는 이름이라는 해석을 지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어떤 특별한 사회 계층, 즉 상인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히브리어 ‘케나아니’는 상인, 혹은 통상하는 자를 일컫는다. 상인으로서 가나안의 이름은 애굽의 아멘호텝 2세(주전 1449-1433)의 비석에도 나오고, 18세기 발견된 ‘마리서신’에는 도둑질하는 상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때 상인이 가나안인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성경과 함께 역사 속에서 가나안족은 갖가지 사회 정치 문화적 분류 속에 열거된다. 이는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낳은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변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성경에는 가나안의 후손이 무려 11개 부족에 이르고, 그 분포지역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뒤덮었다고 기록한다.



최 더 함 박사  
Th.D. / 역사신학  
마스터스세미나리 책임교수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창 10:15-19)

### 저주 받은 떠돌이들

상기 기록에 의하면 우선 노아의 손자 가나안은 11명의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이 그 이름대로 각 후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후예는 모두 11개 부족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저주 받은 함의 후손들이기도 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격리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저주는 마귀의 자녀들의 출현과도 상관성이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연모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진노하시어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고, 그 결과 생존한 사람은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 삼명제와 세 며느리를 합해 8명이었다. 만약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복락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함과 가나안은 노아의 벼은 몸을 보고 그것을 힐난하는(?) 잘못을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가나안족속의 경계를 정하고 난 다음 여러 곳으로 흩어지도록 심판하셨다.

가나안 족속의 영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민수기 34:1-12절 에스겔 47:15-20절과 48:1-28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하살에 난에서 바산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 북쪽으로는 아무르왕국과 접경을 이룬 하맛 어귀까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현재의 지명으로 확

인이 정확히 되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시돈과 그랄,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가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고대할 뿐이다.

대신 역사 문헌에 나타나는 가나안 지역에 대한 언급은 가나안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주전 14-13세기 애굽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의 남쪽 경계는 ‘와디 엘 아리쉬(애굽 시내)’라고 밝히고 있다. 이곳은 실레(sile)로 부터 가사에 이르는 군사요가 있는 곳으로, 여호수아 15:1-4절에 의하면 사해 남동 해변까지 연장되어 있다. 즉 가나안 족속의 영토가 서로는 지중해, 북으로는 하맛 어귀까지요, 동으로는 하살에난에서 바산까지, 남으로는 사해까지로 나타난다.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이들은 셈족, 비 셈족 요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종족의 문화적 집단으로 성장한다. 후대에 이르면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은 베니게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 때엔 특별히 가나안 문화의 계승자들이 나타남으로 하나의 독특한 문화의 양식을 소유한 부족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이후 가나안 족속은 갖가지 사회·정치·문화적 분류 속에 열거된다.

그런데 평화로웠던 초기 가나안의 총라과 성읍은 주전 2,300년경 애굽 제6왕조의 침입으로 파괴되기 시작한다. 이후 주전 2,000년부터 약 1,800년까지 가나안은 애굽 제 12왕조의 지배에 놓인다. 주전 18-17세기에는 히소스 왕조와 함께 가나안 지역에는 강력한 성벽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도시들이 등장한다. 이들에 의해 주전 16세기 히소스 왕조가 추방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애굽은 투트모스 3세 등이 가나안을 재침공하여 탈환을 시도하지만 이후 애굽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가나안 지역에는 헛 족속의 도시들이 성장하여 중심 세력이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에 들어갔던 때가 바로 애굽과 가나안이 갈등을 겪던 시기였다.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 없던 히브리인들이 강력한 도시국가로 무장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정착한 것은 한 마디로 기적이었다.

애굽을 물리치고 앞선 문명국가였던 가나안은 그렇게 힘 없이 오합집산에 불과한 이스라엘과 주전 13세기경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블레셋에게 무너지고 말았다. 가나안 역

사는 이렇게 종말을 고한 것이다.

### 교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일명 ‘가나안 성도’라는 별칭이 공유되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 이유로 기존 교회에서 이탈한 채, 교회 출석을 미루거나 탐색하거나 저항하거나 등의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물론 이런 용어가 합당하다거나 이들을 인정하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엄연한 현실이고, 마땅히 기존 교회와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이 이들이 제기하는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탐구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노아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벳이 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축복을 받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영원히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훗날 헛 족속으로 하여금 션의 후예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헛 족속으로부터 매입했고(창23장), 다윗은 그의 수하에 헛 사람 아히멜렉(삼상 26:6)과 우리아(삼하 11:3)를 두었으며, 솔로몬 왕은 헛 사람과 혼인동맹을 맺고(왕상 11:1) 그들과 무역거래를 하였다(왕상 10:29).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대구원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속히 ‘떠돌이 성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들에게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참된 경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주의 종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대개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선언문을 작성하고 신앙을 새롭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앞세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 새로운 한국교회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할 것이다.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본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피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 (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럽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원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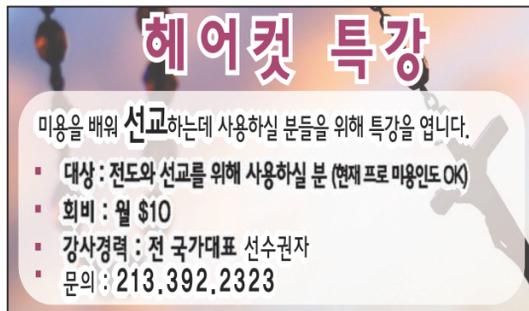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 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죽**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속한 코콜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 주 감 리 교 신 학 대 학 교**

**2017년 가을학기 (8월 21일 개강)**

**본대학 특징**  
 미국내 인가 신학교  
 1.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BPPE: 가주사립학교 교육국) 학위 과정 승인(B.Th, M.Th, M.Div, ESL)  
 2.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ABHE: 기독교 대학 협회) 회원  
 - 본 대학의 목회학 석사(M.Div.)와 신학석사(M.Th.) 졸업생은 소정의 과정 거쳐 감리교단 목사안수  
 - 본 대학은 교단 지원으로 모든 학생에게 50%~100%를 장학금으로 지급  
 - 다양한 장학제도(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  
 - 현장지향적 교육(현장 중심의 실천적 신학/선교지향적 신학교육)  
 - 열린 교육 (복음주의적 신학 / 전 세계 어디서나 수강 가능, 온라인 교육)

신학과 편입생 환영	과정	학위	입학조건	학점
석사	학사	신학사(B.Th.)	고교졸업자, 대학편입생	123
		신학석사(M.Th.)	신학대졸업자	48
		목회학석사(M.Div.)	일반대졸업자	90

**본 대학 비전** 주님이 부르시면 땅 끝 어디라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 채플린(원목, 교목, 군목, 사목)양성

**졸업 후 특전** 소정 과정 수료후 미주자치연회(KMCA) 목사 안수

**제출 서류** 입학원서(홈페이지 내려받기) 추천서 2통(담임목사 외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e-file 명함판사진(6개월이내) 신앙고백서 1통

**전형 일정** 원서접수 2017년 8월 15일 까지 (가을학기)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후 15일내 통지 접수처 : 본교 사무실 E-mail: mtsa1996@gmail.com

■ 문의 : Tel (213) 386-0080, 714-515-3668 E-mail: mtsa1996@gmail.com  
 ■ 주소 : 905 S. Euclid St, Suite 212, Fullerton CA 92832  
 ■ 홈페이지: www.mtsamerica.org

이사장 : 전명구 감독회장 총장 : 임승호 목사



악고의 풍경과 십자군 기사 주둔지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0)

# 십자군 최후의 거점 도시 악고

### 악고의 지리적 모습과 의미

악고(Akko)는 입을 크게 벌린 초승달 모양의 악고만(하이파만과 연결됨)의 북쪽 지점에 있다. 이 만은 남쪽으로 13km 지점에서 지중해로 돌출해 있는 카르멜 산의 꼭대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도시였던 악고는 텔 악고(Tel Akko)라는 둔덕에 있었는데, 이곳은 만에서 1km쯤 떨어져 있었고, 오늘날의 악고 성벽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발전한 이 도시는 하이파와 그 반도를 다 포함한 곳이었지만 해룻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를 만들기 전까지 가나안에서 지중해안 도시 중 가장 번성하고 중요한 항구도시였다.

하이파 지중해 북쪽 16km, 갈멜산 북쪽 13km, 두로 남쪽 48km에 떨어진 곳으로 악고 평야에 이어 이스라엘 계곡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은 페니키아로 통하는 지중해 관문도시로서 기원전 1,500년 페르시아 시대부터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교역 도시로 발전하였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주요한 항구로써 전략적인 요충지로 많은 전

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이파와 악고는 악고만, 악고 평야를 중심으로 식물 공급지 역할을 하는 배후 경작지 중 하나였으리라 본다.

또한 교역로를 통해 갈릴리, 요르단 골짜기, 그리고 동쪽과 동북쪽의 여러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목재와 예술품 곡물 등이 악고를 통해 지중해 연안 도시들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악고라는 명칭은 ‘슬피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아카르)에서 유래한 말로 히브리어로는 ‘악고’, 초기 헬라어로는 ‘아케’, 이집트어로는 ‘아카로’ 그 의미로는 ‘무덤’, ‘무더운’, ‘열사’라는 뜻이고 ‘악고’의 현재 명칭은 ‘아크레’이다.

###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악고

악고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수17:11, 19:26)으로 성경에 나온다. 아셀 지파는 이곳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건설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다.(삿1:31-32) 그 후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사위 ‘넵타네 나답’이

다스리던 성읍 중 하나로 하이파와 더불어 식물을 공급하는 성읍인 돌지역에 가까이 있다.(왕상 4:11)

악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인 필라델푸스가 이때 항구의 이름을 ‘톨레마이(Ptolemais)’라 하였다. 바울이 최후로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이곳에서 일주일간 묵은 기록이 있다.(행21:7) 클라우디우스 로마황제 치하에 악고는 로마의 식민도시가 되었으며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 후 로마가 멸망한 후에 돌레마이는 아랍이 다시 점령하였으며(AD 636) 이때에 옛날 이름인 악고로 바꾸어졌다.

고대 악고는 하이파만의 해변에 있었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는데 로마 시대에 방파제를 쌓아 지금의 악고로 확장되었다. 아랍시대에는 악고가 근방에서 가장 번성한 해안도시가 되었으나 이후 십자군이 도래하면서 도시가 파괴되고 성채도시로 건축되었다.(AD 1104) 그리고 이 도시를 요새화하여 라틴 제국과 유럽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무역과 정치 행정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켰다. 항구도시로서 항구 쪽으로는 십자군 시대의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고 지하수로와 십자군 시대 기사들의 숙소, 십자군 시대의 교회 등이 남아 있다. 1099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십자군 왕국을 세웠다면, 1191년 3차 십자군은 이곳 악고에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십자군 왕국을 세우고 이곳을 수도로 하여 발전시켰지만 결국 십자군이 1217년 살라딘 장군에 의해 패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나가기 시작한다. 결국 1299년 십자군은 바로 이곳 악고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여다 아랍에 패하여 완전히 십자군 시대를 접는다. 1517년부터 오스만 터키 왕국이 이곳을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1799년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곳을 공격하였으나 오스만 터키에 의하여 패하였다. 1차 대전 후 영국군이 1918년부터 이곳을 위임 통치하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악고는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 악고의 오늘

1800년대 시온주의 영향으로 하이파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항구도시로 발달할 때 악고는 상대적으로 발달이 뒤지게 되었다. 1945년 나치 독일의 600만 학살 사건 후 하가나 호를 타고 유대인들이 본토로 몰려오자 하이파는 일약 관문도시로 발전하지만 악고는 점점 잊혀져 가는 도시가 된다. 하이파가 공업도시 항구도시로 발전하는 가운데 악고는 어업과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기하게 된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항구중 가장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유서 깊은 유적지이기도 하다.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흘렀다. 그러나 십자군이 쌓아놓은 해안 성벽이 여전히 악고에 남아있어 십자군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늦은 저녁 악고에 있는 십자군 성벽을 따라 서쪽 지중해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도 멋있고, 한 낮에 배를 타고 성벽에서 약간 떨어진 바다로 나

가 성벽을 바라보는 것도 멋있다.

18세기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때 건축한 터키 풍의 건축물도 많이 남아있다. 악고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Jezzar Pasha 모스크는 오스만 터키 통치자 Jezzar Pasha에 의하여 1800-1814년에 지어진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다.

현재 이 도시에는 4개의 가톨릭 교회와 2개의 수도원이 있다. 성 요한 교회의 지하 예배당의 지하 8m에 위치한 십자군 시대의 유적이 볼만하다. 십자군의 자신 단체 본부 사용되었던 이곳은 십자군 기사들의 요새로도 사용되었다.

옛 도시인 항구 쪽에는 아랍의 후예들인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자르(옛날 상점)를 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항구에서는 어부들이 생생한 어물들을 바로 건져 올려 배에서 내오고 있는 모습이 활력이 있어 보인다.

인구 약 5만이 되는 악고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 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최근에 하이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악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한인 사역자와 더불어 약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현재 한인 사역자 가정에서 모이고 있으며 교회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악고 시장이 앞장서서 찾아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 봄날에 이스라엘 한인 사역자회에서 악고를 찾아가서 악고의 5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적이 있다. 악고가 십자군 시대의 영광을 찾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그곳에 살고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에 대해 소식이라도 들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십자군 지하 요새

## 2018 NEW CALENDAR

### Best Seller

###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 주님과 함께하는 30일

탁상달력 사전 주문 시작합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주문완료 해주시 교외환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착오없이 빠르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탁상달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급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도서

#### 주님 오실 때까지

임지석 | CLC | 224쪽

나성세계로 교회를 담임하는 임지석 목사의 다섯 번째 칼럼집 “주님 오실 때까지”가 출판됐다. 남가주 지역 주요 한인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임목사의 칼럼은 주변의 다양한 소재와 사건들을 통해서 느꼈던 생각들을 담백하게 써내려 가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앙적 교훈들을 간결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번엔 100여 쪽의 칼럼을 묶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전택부 | 홍성사 | 487쪽

한국 YMCA의 태동기인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풍성히 담고 있다. 항일투쟁과 민중계몽, 농촌운동, 민족교회육성 등을 거친 YMCA의 길은 격변기 현대사 속 시대의 부름에 호응하여 역사적 사명을 다하며 걸어온 길이었다. 저자의 선집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출판사는 <토박이 신앙산책>에 이어 이 책을 펴냈다.



#### 성경 인물 열전

김문훈 | 두란노 | 312쪽

인기리에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을 동명의 책으로 엮었다. 23명의 친구와 성경 인물들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여,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각 인물을 통해 한 번에 꿰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이 익숙한 이들에게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통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마커스 J. 보그 | 김태현 역 | 비아 | 344쪽

개정판으로 나온 그리스도교 신앙 또는 언어 입문서. 구원, 희생, 예수, 하나님, 죄, 용서, 자비, 거듭남, 재림, 성서, 주기도 등 자주 사용되지만 점점 계도화되어 가는 신앙 용어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살피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성경이 쓰였을 당시,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 가운데 위 언어들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REVIEW

# 존경받을 순 있지만 사랑받긴 힘든 완벽주의에서 탈출하라

“완벽이란 중요하고 좋은 것이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각각의 목적에 걸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주 갖게 되는 위험은, 특정한 분야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려 하며, 그로 인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실, 업무와 사역에 있어 마땅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완벽주의’는 다르다. 완벽함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려 한다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것이 ‘완벽주의’이고,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책에서 저자는 완벽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제시한다. “당신은 완벽한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저자는 묻는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적어도 몰래-바라는가?”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대부분은 완벽한 삶에 대한 소망과 동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



완벽주의에 작별을 고하다  
코넬리아 마크 | 강미경 역  
토기장이 | 160쪽

려 하고, 속내를 보이려 하지 않으며, 자신 앞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물론 더욱 반듯하게 처신하려 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절대 자신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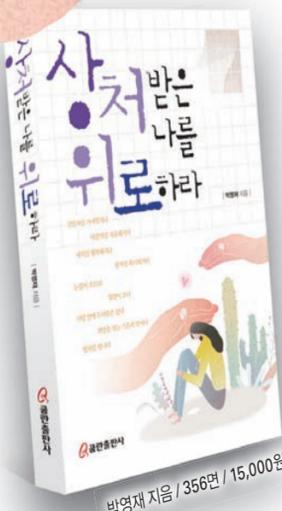
점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저자는 1부에서 ‘완벽주의’의 기본 틀과 극단적인 부작용,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유 4가지 등을 설명하는데, 많은 이들이 ‘본인 이야기’로 느낄 것 같다. “완벽한 사람은 존경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받지는 못한다”는 저자의 말은 완벽주의에서의 탈출을 간절하게 한다. 2-3부에서는 참된 나를 회복함으로써 완벽주의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 그리고 자신만의 멋진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더 잘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여러 모습들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중세 로마가톨릭 사제들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 평범해도 괜찮다. 좀 놀아도 괜찮다. 그리고 가까이 남을 칭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 있다. 부록으로 ‘자기과시욕과 완벽주의 테스트’가 담겨 있다. 필자도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기내어 이 글을 썼다. 이대웅 기자

설교자를 위한 필독서!

## 설교를 위한 생생하고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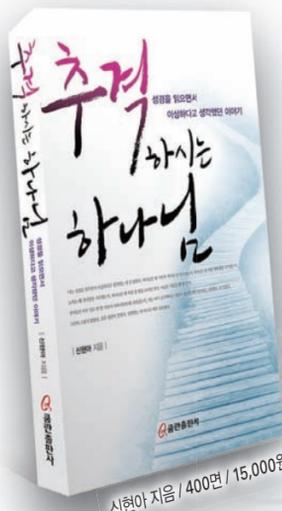
**한국인 최초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효성교회 박영재 목사의 위로의 선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깨닫고 울고 감동하며 위로**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책!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책!**

가수 EXID의 솔지, “책을 읽는 시간 내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진주로 바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이석훈 교사,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일신여중 김중서 교사, “영혼이 맑아졌어요.”  
경인교대 김재운 교수,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교회 김진홍 목사,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주부 진선미 씨, “책이 쉽고 재미있어 단숨에 읽었어요”  
고3 한수림, “지쳐 있었던 게게 이 책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영재 지음 / 356면 / 15,000원

### 추격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던 필자는 자신의 궁금증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호기심은 아닌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궁금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목사들이 읽어도 좋고 평신도가 읽어도 좋을 만큼 논리적으로 잘 쓴 책”** 현 평양제일교회장, 칼빈신학교 교수 서문강

신현아 지음 / 400면 / 15,000원

# 내면과 삶으로 나타나는 성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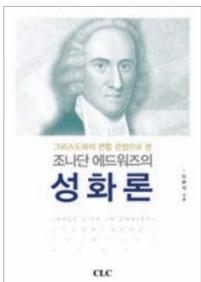
그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이라는 주제로 그의 성화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재의 조직신학의 틀로 새로운 옷을 입혀 만들어낸 저작이 없었는데, 이윤석 박사는 최초로 에드워즈의 성화론을 완성했다. 한 학자의 신학주제를 연구할 때 한 책을 선정하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특징을 찾아 쓸 수도 있고, 여러 책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종합해 작성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에드워즈의 성화론은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글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다뤘을 뿐, 하나의 제목으로 연구하고 출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는 에드워즈의 다양한 저작들에서 성화론을 연구해 이것을 조직신학 주제에 접목시켜, 그의 성화론이 무엇인지 탁월하게 저술했다. 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1장 '서론'에서는 본 글을 쓰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과 범위와 방법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다룬다. 2장 '선행 연구 고찰'에서는 그동안 에드워즈 성화론과 관련된 연구를 살피고,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다. 여기서는 에드워즈의 구원론과 성화론이 의의 전가보다 주입된 은총에 가깝다는 가톨릭적 주장과, 성화가 칭의보다 앞선다는 성향적 존재론을 부정하며, 그가 개혁과 청교도의 성화를 이어가는 신학자임을 증명한다.

3장 '구속사와 언약의 틀'에서 저자는 성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논의의 기초가 되는 에드워즈의 구속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정리한다. 여기서는 그의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방향과 목적이 되는 구속사를 다루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 언약이 수립되고, 성령은 연결점으로 함께하며, 이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은혜 언약은 성부와 신비적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와 체결을 맺고, 성자와 신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언약이라고도 불린다. 4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들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기반인데, 구속사의 관점과 구원 서정의 관점에서 이 신비를 설명하고 있다. 구속사에서 신비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구원 서정에서 그리스도와 개별 신자간의 연합에 초점을 두며 에드워즈가 칼빈과 청교도의 관점을 계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5장 '성화의 기본 원리'에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화의 객관적 근거로 삼위일체의 사랑과 선택하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  
이윤석 | CLC | 480쪽

는 사랑, 그리고 구속 언약에 나타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나타난 사랑을 다룬다. 그리고 구원 서정의 관점에서 성화의 주관적 근거로 내주시는 성령을 다루고, 이 성령은 신자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작용하여 신자의 거룩을 돕는다. 또한 이 성령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이루며 성화의 보증으로서 이미와 아직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6장 '성화의 결정적 특성'에서는 그가 가졌던 결정적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는데,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것을 특징짓는 핵심원리와 그것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과 에드워즈의 표현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인 어떤 것(what is real)' 논쟁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장 '성화의 점진적 특성'에서는 에드워즈가 이해하는 성화가 이뤄지는 방식과 점진적 성화로 이뤄지는 거룩함의 특징, 거룩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세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8장 '결론'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에드워즈의 성화론의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는 구속사와 언약의 틀에서 성화를 다룬다는 것이다. 성화가 개인 구원 획득 후 나타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펼쳐지는 사역이고, 구속사와 구원 서정에서 다루어지는 풍성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속 언약이 체결될 때 성자께서 성육신과 고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만, 이것이 신자들을 위한 공로가 돼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거룩을 소유하게 된다.

필자는 여기서 유익이 되었던 것은 구속 언약을 성부와 성자께서 체결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연결점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미비한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더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늘 갱신되어 그 본질과

효력이 신선하게 유지돼 왔는데, 동일하게 이런 역할이 신자에게도 역사해 그분이 우리의 연결끈으로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전망을 보게 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한 성화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가 모든 하늘의 복을 받는 기초인데, 이것을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자신의 거룩으로 이어받으며 교제와 기쁨을 누린다. 이 신비를 통해 신자는 신비적 그리스도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되는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 생동적 연합과 친척 연합과 법적 연합의 특징과 유익을 얻는다. 필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은혜가 됐는데, 창세 전에서 갖는 특징은 그리스도와 택자들이 연합해 있었다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 성육신 전까지의 특징은 은혜 언약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점진적으로 선명해지며 신비적 그리스도가 자라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에드워즈의 성화의 결정적 양상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현대의 존 머레이가 주장한 것처럼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드워즈가 성화의 점진적이고 효과적이고 교회적인 특징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의 저술에서 성화의 결정적 양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아마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두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의 눈에는 성화의 결정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였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성화의 점진적 양상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자칫 우리는 내면과 삶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만큼 성화가 눈에 그려지도록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의 점진적 성화의 원리와 방법과 열매들을 보며, 신앙 상태와 내면을 점검하게 되었다. 저자는 에드워즈의 성화를 존재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잘 포착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에드워즈의 성화론을 종합하고 조직신학의 주제로 드러냈다. 개혁주의 신학의 깊고 풍성함이 울려 퍼지고, 성화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와 교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사명으로 제시된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교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8가지 단계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안주할 것인가?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톰 레이너 | 정성목 역  
두란노 | 216쪽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인프라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성공적이기를 바란다면 따라야 할 단계들이 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본서의 제목은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이다. 이 문구는 저자인 교회 전문가 톰 레이너에게 한 목회자가 찾아와 자신이 겪었던 고초를 토로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담자는 어떤 교회에 부임하여 8년여 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기존의 커다란 강대상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교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심플한 작은 강대상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예전의 강대상이 되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톰 레이너는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리더들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단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첫 번째 단계, 멈추어서 기도하라.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초는 기도다. 기도는 모든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어렵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

두 번째, 현실의 절박성을 직시하고 알라.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상

황에 대해 성도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지 않은 대가로 많은 적들을 양산할 수 있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를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라.

세 번째, 열정적인 동역자를 찾아라. 어느 교회에나 건전한 의지를 가진 열정적인 교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가라.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치 서부 활극 영화의 주인공처럼 혼자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라. 성도들은 리더에게서 소망과 가능성을 찾는다. 이러한 소망은 비전을 동반한다. 이 일을 위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목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라. 변화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어떤 변화를 추진하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 때 비판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들을 상담하고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라.

여섯 번째, 내부에서 외부로 초점을 이동하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을 보게 하라. 지역 사회를 섬기려는 정신이 변화를 뒷받침해 준다. 목표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는 자연적 상태에서, 외부에 초점을 맞춘 초자연적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작더라도 변화의 증거를 찾아라. 작은 열매가 큰 열매를 이루는 단초가 된다. 작은 열매를 맺는 일은 큰 변화를 위한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안주하지 말고 계속 변화를 실행하라. 복음의 절박성은 계속된다. 안주는 위험하다. 특정한 변화를 일으킨 후에 교인들의 마음 속에 비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 리더들은 본서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방법론을 얻게 될 것이다.

채천석 목사(크리스찬북뉴스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링과 우편수령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 프로지 골드

###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는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